

나주시, 출산축하꾸러미·다동이 육아용품 지원 확대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출산 가정 지원 강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속도

나주시가 출산축하꾸러미 지원과 더불어 둘째아부터 육아용품 구입비를 제공하는 정책을 확대 시행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생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 지원 정책을 새롭게 개편해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 사업인 다동이 육아용품 구매비 지원이 기준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기준으로 나주시 출생 순위 비율 가운데 약 32퍼센트를 차지하는 둘째아 가정이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동이 육아용품 구입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이 태어난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이며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유모차, 신생아 의류, 수유용품 등 필수 육아용품을 도내 오프라인 기맹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나주시는 모든 출생 가정에 신생아 필수용품을 제공하는 '행복담은 출산축하꾸러미 배달사업'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

출생아 1인당 약 10만 원 상당의 젖병 세트, 신생아 속싸개, 방수요 등 필요한 품목을 가정으로 배송하며

매년 수요 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6년 출생아부터는 둘째아 이상 가정은 육아용품 구매비 지원을 받고 구매비 지원 대상이 아닌 첫째아 출생 가정은 기존처럼 출산축하꾸러미를 배송받게 된다.

이는 둘째아 이상 가정의 경우 이미 기본 육아용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선불카드로 필요한 품목을 직접 선택하도록 한 조치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남아이통,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둘째아 이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출생 가정이 체감하는 혜택을 강화하고자 했다"라며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나주 실현을 위해 모든 출생 가정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가 출산 지원 정책을 새롭게 개편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되고 있다. 나주시가 첫째아 출생 가정에 제공하는 '행복담은 출산축하꾸러미'.

〈나주시 제공〉

함평군 산불피해지 '탄소저장숲'으로 재탄생...복원 속도

대동면·신광면 일대 641㏊

2024년부터 인공조림 사업 추진

함평군이 산불 피해의 상처를 딛고 산림 복원과 기후 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산림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 2023년 대동면과 신광면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소실된 산림을 신속히 복원하고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 피해지 신속 복원 및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4월 발생한 산불로 대동면과 신광면 일대 총 641㏊의 산림이 피해를 당하면서 생태 기능 저하와 경관 훼손 등 시급한 복구 필요성이 제기됐다.

함평군은 훼손된 산림의 생태 기능을 회복하고 숲 재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부터 총 4단계에 걸쳐 인공조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약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피해 임야 173㏊에 단풍나무 등 4개 수종 21만 1565본을 심어 산림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산불피해지 가운데 대동제 생태공원 일대 3㏊ 부지에는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한 '탄소저장숲'도 조성 중이다.

탄소저장숲은 생물다양성 회복과 산불피해지

생태 복원, 경관 개선을 통한 관광 자원화 등 복합적 효과를 목표로 하는 '함평형 녹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간 약 23.67㏊의 탄소 흡수와 0.05㏊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산림청이 주관한 '2025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고 있고 국비 15억원을 포함해 총 30억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산불피해지 복원 사업은 훼손된 산림을 되살리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건강한 생태환경을 회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김성장 흥군수 등 관계자들이 전남군 단위 지역 최초로 '보훈문화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전남 군단위 최초 '보훈문화상' 수상

국가보훈부 보훈정책 성과 인정

상폐와 함께 시상금 2000만원

장흥군이 전남 군 단위 지역 최초로 '보훈문화상'을 수상했다.

장흥군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26회 보훈문화상 시상식'에서 보훈정책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훈문화상은 국가보훈부가 보훈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개인과 기관을 인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으로 장흥군은 상폐와 함께 시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

전남권에서는 2009년 순천시에 이어 16년 만에 두 번째 수상이자, 군 단위 지역으로서는 처음으로 선정되는 기록을 남겼다.

장흥군은 전남권 최초의 국립장흥호국원을 유치하고 장흥군 보훈회관 건립, 안중근 의사 추모 역사관과 메모리얼 파크 조성 등 보훈 인프라 확충에서 성과를 냈다.

특히 호국·보훈 관련 시설을 단순한 기념 공간을 넘어 역사·교육·추모가 결합한 복합 보훈 공간으로 발전시키며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

또 안중근 의사 순국 추모제, 학생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호국·보훈 글짓기 공모전, 보훈문화제 등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보훈문화 프

로그램을 추진해 세대 간 보훈 가치 공유와 확산에 앞장섰다.

이와 함께 보훈수당 인상, 국가유공자 명예 달아드리기,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독거 보훈회원 돌봄, 보훈단체 호국순례 지원 등 보훈대상자에 우와 복지 향상에도 지속해서 힘써 왔다.

장흥군 관계자는 "보훈문화상 수상은 장흥이 지켜온 역사와 정신이 국가 보훈 정책 속에서 확고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호국·평화·통일을 잇는 보훈문화 선도 지자체로서 '장흥다운 보훈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부장 kykim@

강진만 횡단 해상교량 건설사업 착수

강진군·전남도 26일 협약식

강진만을 횡단하는 교량 건설사업이 시동을 건다. 강진군과 전남도는 오는 26일 강진종합운동장 내 웰니스푸드센터에서 강진만 횡단교(해상교량)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

협약식은 강진만을 중심으로 동서 생활권을 직접 연결해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물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

단계다.

강진군과 전남도가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과 역할 분담을 공유하는 자리다.

해당 사업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향후 기본구성 용역,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설계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교량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 역시 관련 법적, 행정적 검토와 함께 주민 의견,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하게 된다.

강진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요 과제로 두고, 향후 용역 및 행정 절차 단계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지방도로 지정된 해당 노선에 대해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승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지도로 지정될 경우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다각적인 행정적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사업을 서두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나주시, 재난 안전 정부·광역 평가 4관왕 달성

환경정비·훈련 등 전 분야 우수

나주시가 2025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는 '2025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실태점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서비스 품질 향상과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전국 1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상수도 일반과 상수도 운영 및 관리, 상수도 정책 등 3개 분야 31개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2024년 실적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담양군은 급수인구 5만 명 이하 평가 그룹 47개 지자체 가운데 상위 20%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호

남과 제주 지역에서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담양군이 유일하다.

담양군은 평가 전반에서 안정적인 상수도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돗물 운용 분야에서는 상수도종합정보시스템 운영과 정수장 개선 실적을 통해 맑은 물 공급에 힘써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고도정수처리 운영과 노후 배수관 교체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확보해 수질 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꾸준히 이어온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담양군 원도심서 24~25일 성탄 특별공연

담양군 문화재단이 연말연시를 맞아 제7회 담양 산타축제와 연계한 크리스마스 특별공연(포스터)을 오는 24일부터 이를 간 담양읍 중앙공원 일원에서 연다.

군민과 관객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거리 공연을 통해 원도심 유동 인구를 늘려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공연은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첫날인 24일에는 정용주, 공성길, 주현 등 포크 가수들이 무대에 오르고, 도립대 버스킹팀과 여신

콜라보예술단이 함께 참여해 송탄 이브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성탄 당일에는 현악연주자 김수연을 비롯 트로트 가수 한소아, 농민가수 박민성, 백파이프 연주자 김종식, 인디밴드 코너(Corner) 등 다양한 장르의 출연진이 공연에 나선다.

공연 기간에는 재단 누리소통망 팔로우와 메신저 친구추가 등 간단한 참여프로그램과 함께 군 고구마와 가래떡 체험도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의 즐길 거리를 더한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